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6.(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담당부서	도시환경전문위원	**작성자**	박일용 전문위원(044-300-7471) 이 호 주무관(044-300-7443)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7년 본예산안 예비심사 돌입

- 제110회 정례회 기간 중 26일, 도시주택국·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일정으로 도시주택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6,000만 4천원 감액한 370억 5,182만 9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4,229만 4천원 감액한 433억 6,371만 4천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한 27억 9,900만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00만 9천원 증액한 240억 5,103만 7천원으로 편성·제출됐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농촌빈집 정비,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사업비가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 각종 연구용역과 관련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금액과 실제 예산편성 요구액의 차이를 면밀히 확인했다. 나아가 용역 수행 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용역 추진 시 상임위원회가 함께 참여해 의회와 소통하며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심사의 첫발을 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집행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27일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며 오는 12월 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